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진용 갖춰간다

미계약 FA 라이트 하혜진·실업팀 소속 장신 세터 구슬 영입 선수 8명으로 늘어...김형실 감독 "유망주 출신 팀 활력 기대"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튜)이 여자프로배구단에 하혜진과 구슬(양산시청)을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수 추가 영입으로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은 선수단을 총 8명으로 늘렸다.

앞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 특별지명을 통해 이현비, 이현, 지민경, 최가은, 최민지 5명을 뽑았다. 헝가리 출신이자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 순위인 엘리자벳 이네 바르기도 지명했다.

하혜진은 FA 미계약 선수였지만,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배구연맹(KOVO), 기존 구단과 합의로 영입될 수 있었다. 하혜진은 지난 2014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에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입단후 지난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으나 기존 6개 팀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4월 15일 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2021-2022시즌 V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한국배구연맹 이사회는 신

생 구단의 선수 수급을 위해, 페퍼저축은행과 계약하는 FA 미계약 선수는 2021-2022시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감독은 "하혜진은 점프력도 있고 경기경험도 쌓은 장래성을 고려한 선수로 적합하다고 판단,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 용병 선수와 함께 라이트 임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터 구슬은 지난 2019-2020시즌 3라운드 1순위로 KGC인삼공사에 드래프트돼 프로에 입단했으나, 한 시즌만 뛰고 팀을 떠났다. 현재 실업팀 양산시청에서 활동 중이다.

김형실 감독은 "구슬은 키 181cm의 장신 세터로 블로킹 능력을 갖춘 유망주로, 이현과 세터 경쟁을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하혜진과 구슬은 페퍼저축은행 훈련캠프인 용인 드림파크(DREAM PARK)에 합류해 선수와의 호흡과 팀워크를 다지는 훈련을 시작했다.



하혜진

하혜진은 "FA미계약 이후에 배구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상황에서 페퍼저축은행의 제안으로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슴 벅잡고 설렘이 다가왔다"며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선생



구슬

의 새로운 동료선수들과 좋은 팀워크와 호흡을 통해 더욱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입단 포부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황기욱·박찬용 K리그2 '베스트 11'



황기욱

박찬용

전남드래곤즈의 황기욱(MF)과 박찬용(DF)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2021 14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1-1 무승부를 이끈 전남의 황기욱과 박찬용이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은 지난 30일 열린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무려 4차례나 골대를 맞히는 '골대 불운'을 겪었지만, 0-1로 뒤진 후반 42분 기록된 사무엘의 페널티킥 골로 1-1 무승부를 이뤘다.

극적으로 승점 1점을 더한 전남은 서울이랜드를 1-0으로 꺾은 대전하나시리즈에 이어 승점 1점 차 2위에 올라갔다.

한편 14라운드 MVP는 FC안양의 김경중에게 돌아갔다. 김경중은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고 최민석 핀 수영 청소년대표에

핀 수영 유망주 최민석(광주체고 2년·사진)이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민석은 최근 열린 제17회 세계 청소년 핀 수영 선수권대회 및 전국 체전에서 표면 100m 신기록을 수립, 금메달과 함께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민석은 정읍 동신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 체육중학교에 진학해 수영 종목에서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기대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목 혈관 장애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게됐다. 병마도 그의 꿈을 꺾지는 못했다. 그는 광주 체고에서 핀 수영으로 과감하게 종목을 전환한 후 다시 유망주로 떠올랐다. 궁정적인 마인드로 매일매일 훈련일지를 꾸준히 써가며 대회를 준비한 열정이 성적의 밑거름이 됐다.



몸이 아픈 최민석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뒷바라지 덕분이라고 한다. 정읍에서 전동 손맛두부(모락모락수제) 집을 운영하는 부친 최대준(47)씨는 헌신적으로 아들의 운동을 도왔다.

그의 꿈은 수영 지도자가 돼 후배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최민석은 "7월에 열린 예정인 러시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압도적인 높이 차이

1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유로 U21 축구 준준결승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다니 카발뇨(왼쪽)가 상대 선수보다 훨씬 높게 뛰어들며 볼을 따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사무처장에 김성규

광주FC가 김성규(사진) 선임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광주는 1일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 3층 시청각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성규 선임 사무처장 선임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최만희 대표이사를 보좌해 사무처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선임은 구단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국 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구단은 지난달 단장 중심의 1부 3팀 체제를 사무처 중심의 1부 3팀 체제로 개편했다.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사무처장은 "경영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체육회, 시민단체,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도 병행해 시민구단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광주상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2015년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에 이어 광주시통합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티 작별 아케로 결국 바르셀로나행

"메시, 바르사 잔류할 것"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와 작별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공격수 세르히오 아케로(33)가 결국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유니폼을 입는다.

바르셀로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케로와 2022-2023시즌까지 2년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 내 타 구단이 아케로를 영입할 시 지불해야 하는 바이아웃 금액을 1억 달러(약 1351억원)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맨시티로 이적해 2011-2012시즌부터 10시즌 동안 활약했던 아케로는 다음 시즌부터 다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아케로는 아르헨티나 클럽 인디펜디엔테에서 유스팀을 거쳐 15세이던 2003년 1군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2006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해 유럽 무대로 진출한 그는 다섯 시즌을 보내고 맨시티로 이적했다.

맨시티에서는 통산 공식전 390경기에 출전해 동안 260골(74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5

회를 포함한 총 15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아케로는 맨시티 구단 사상 최다 득점 및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최다 득점 선수로 이름이 올라 있다.

페프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최근 영국 공영 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아케로는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임박했다"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케로는 최고의 선수인 리오넬 메시(34)와 함께 뛰게 될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 역시 베테랑 골잡이인 아케로의 영입이 그의 아르헨티나 동료인 메시와 재계약에도 쉐기를 막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바르셀로나 '원클럽맨'인 메시도 이번 달로 계약이 만료된다. 메시는 지난해 8월 바르셀로나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하며 결별을 선언했으나 7억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에 발목이 잡혀 떠나지 못했다.

아케로는 바르셀로나 입단 기자회견에서 "메시와는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로 같이 뛰었다. 나는 그를 잘 안다. 내 생각에 그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팀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메시의 잔류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왕: 더 라스트 챔피	
3관	파이프라인
4관	크루엘라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애플
6관	크루엘라
9관	크루엘라, 라이더스 오브 저스티스
7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파이프라인, 비와 당신의 이야기	
8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영화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탐정 코난: 바색의 탄환, 내일의 기억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캐터필러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즐거움
문화산책